



## '2003 축산물 브랜드전' 성황리 개최

농림부가 주최, 농협·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본회 등의 후원으로 '2003 축산물 브랜드전' 행사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소재 서울농업무역센터(aT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개막행사에서는 허상만 농림부 장관을 비롯, 김건태 본회 회장,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등 축산관련 단체장과 관련업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모두 1백26개 업체가 참가, 지난해 1백11개 업체보다 규모면에서 증가했으며, 전시회 기간동안 대형유통업체 임직원 간담회와 각종 전시·부대행사 등을 통해 우수 축산물 소비홍보와 판로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인 행사가 되었다.

## 농림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정

### - 구제역 발생시 예방접종 가능

앞으로 구제역 발생시 발생정도 등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 자문 또는 검역원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을 제정해 지난 달 28일 발표했다.

제정 내용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시는 농림부장관이 발생정도 등을 감안해 살처분 대상 및 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을 가축방역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발생직후 위험지역·경계지역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해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상관찰을 실시토록 하고,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완료일부 14일 경과 후 가축수매를 허용하며, 가축방역협의회 자문 또는 검역원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환축발생시 체계적인 방역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제한·살처분·역학조사·소독 등 방역조치 사항에 대해 농림부·검역원·시도·시험소·시군 등 각 방역기관별로 업무도 부여했다. 또한 시장·군수는 살처분·매몰작업 인원에 대해 작업요령 등을 교육토록 했다.

또 농림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구제역 예방 및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한 구제역방역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농림부 장관이 지자체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 가축질병중앙예찰협,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

지난 10월 1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가축질병중앙예찰협의회(위원장 박종명)에서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과 청정화 이후 방역 시스템상에 나타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는 청정화가 어렵고, 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도출됨에 따라 농장간 이동 돼지에 대한 이동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이를 위해 가축질병중앙예찰협의회는 각 시·군을 중심으로 가축의 이동통제시스템을 전산화 한 후 돼지에 우선 적용하여 모델을 개발한 후 타축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가축의 이동통제 시스템 모델은 농가가 관할 시·군 이외의 지역에서 돼지를 구입할 경우 시·군에 입식사항을 신고하고, 시·군에서는 방역본부 방역요원으로 하여금 예방접종 확인서, 임상검사 등 이상여부 확인, 필요시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의뢰토록 조치하고, 방역요원은 이상여부 확인을 시·군 및 관할 가축병역기관에 통보하면 된다.

## 경기 안성시 돼지콜레라 발생

농림부는 경기 경기 안성시 일죽면 장암리의 한 양돈장에서 감염의심 돼지 한마리가 나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11월 4일 정밀조사를 의뢰한 결과 돼지콜레라 양성반응으로 최종 판명됐다고 7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 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 3,000여마리 가운데 양성반응 돼지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70일령의 돼지 93마리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수과원 조사 결과 발생농장은 1차 예방접종 이후 일부 위축돼지에 대한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차 접종만으로 항체가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했다.

## 돼지콜레라 방역관리실태 합동점검 결과

농림부는 지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검역원·축산연과 합동으로 올해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지역과 8월 기준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으로 조사된 지역 등 모두 32개 시·군에 대해 방역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당초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적발됐던 101농가 가운데 8~9월중에 과태료가 부과된 농가는 충남 아산의 단 1가구에 그쳤다고 10월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 9~12월 시·군별 양돈농가 검사 계획 수립·이행상황과 돼지매매·출하시 예방접종확인서 발급·확인실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돼지콜레라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인 농가에 해당 시·군이 2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농가의 반발과 미납시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부분 일정기간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양성률이 80% 이상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처분에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각 시·도에 재검사를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지시하고, 양돈농가들이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백신접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9월 돼지콜레라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으로 조사된 지역은 경기 시흥(79.6%), 강원 인제(78.8%)·화천(54.5%), 충북 옥천(77.6%), 충남 홍성(71.7), 전북 군산(78.2%)·남원(61.9%)·익산(59.1%)·임실(78.3%), 전남 장성(76.3%), 경남 남해(57.5%)·마산(75.0%) 등 12개 시·군이였다.

### 돼지 오제스키병 발생 급감

돼지 오제스키병 발생률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에 따르면 오제스키병은 2001년에 720건, 지난해 50건, 올해는 9월 말 현재 16건에 그쳐 오제스키 청정화 단계에 거의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1년 통계수치에는 양돈농가가 밀집된 전북 익산 왕궁양돈단지에서 발생한 400건이 포함돼 있어 통계상의 수치만 놓고 오제스키병 청정화를 예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돼지 거래가 계속될 경우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발병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신경성 질병으로 돼지 유·사산 등을 일으키는 오제스키병의 양성반응 돼지는 대부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을 통한 채혈 검사로 발견되며, 임상증상이 미미하기 때문에 농가들도 신고를 기피하거나 병성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돼이돼지를 구입하지 말고, 양성반응 돼지는 바로 도태시키는 등 농가의 적극적인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자구책이 요구되고 있다.

### 돼지 A·B 등급 출현율 감소세로 반전

지난 4월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돼지 A, B등급 출현율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근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르면 9월 도축된 돼지 가운데 A등급 출현율은 40.6%로 8월보다 0.2% 포인트 낮아졌다는 것이다. B등급 역시 30.8%로 전월대비 1.2%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따라 A, B등급의 출현율은 71.4%로 지난달 72.8%에 비해 1.4%포인트 줄어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반전됐다.

### 9월 양돈사료량 전년비 3.4% 감소

최근 농협과 한국사료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양돈사료량은 47만7천6백여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 49만4천401톤에 비해 3.4%가 감소했으나 한달 전 44만8천11톤 대비 6.6%가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럼에도 9월말 현재 양돈사료량은 413만9천393톤으로 지난해 동기간 431만9천781톤에 비해 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겨울철 돼지유행성설사병(PED) 주의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9월 PED 발생농장

및 두수는 전남과 경남의 3농가에서 461마리가 발병, 8월 1천640두에 비해 71.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월말 현재 PED 발생두수는 69농가에서 2만285마리가 발생, 전년 같은 기간의 34농가 8천290마리에 비해 각각 102.9%, 144.7%가 증가했다. 또한 작년 일년동안 발생한 건수(48농가) 및 두수(1만3천924두)보다도 각각 43.8%, 45.7%가 많은 수치이다.

특히 PED가 겨울철에는 더욱 많이 발병할 것으로 보여 사양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PED는 기온이 급강하는 겨울철부터 낮은 기온이 지속되는 3~4월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분만 5~6주전에 1차 예방접종을 실시한 다음 분만 2~3주전에 2차로 보강 접종해서 분만후 초유를 통해 어미의 항체가 자돈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향후 10년간 농어촌에 119조원 지원

DDA·FTA, 2004년 쌀 재협상 등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농어촌을 위해 향후 10년간 119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 오전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제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 말까지 농업 발전과 농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119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총 119조원중 내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될 50조514억원은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이 기간 투·융

자 규모는 연평균 7.8%씩 늘어나 2004년 8조4천억원에서 2008년에는 11조4천억원으로 증가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투·융자 계획만 잘 실현되면 농가 1인당 소득은 2002년 도시근로자의 90% 수준에서 2013년 105%로 늘어나는 등 농민과 농촌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농림부 신규 정책자금 1% 인하 검토

농림부는 농축산 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등 내년에 지원되는 신규 정책자금의 금리를 4%에서 3%로 1%포인트 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7일 부채경감대책과는 별도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내년 신규 정책자금의 금리를 3%로 낮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리 인하에 필요한 예산은 4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계약 전력량 초과사용 '주의'

일부 축산 농가들이 당초 한국전력측과 계약한 전력용량을 숙지하고 있지 않아 초과사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또 이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 아산의 양돈농가 최아무개씨(38)는 한 달 동안에 쓸 수 있는 계약전력 용량이 4,500 kW였으나 올해 3~4월에는 계약 용량을 초과 사용했다.

이 때문에 변압기가 고장나 8월11일 갑작스

레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축사 환기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새끼돼지 170여마리가 질식사 죽었다.

최씨의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한전 아산지점 배전부 김윤곤 과장은 “계약한 전력을 초과 사용함에 따라 변압기에 무리가 생겨 정전이 된 것 같다”며 “농가가 정전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농가들은 사용전력량을 수시로 확인, 계약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축사에 비상용 자가발전기를 설치해 정전사고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돌입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진 출국 기간이 끝남에 따라 11월 17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정부는 50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날부터 28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10일간 일제 단속을 벌이며, 12월에도 8일부터 19일 사이에 10일간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매달 10일씩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 농업연수생 이탈 양돈분야 가장 높아

외국인 농업연수생 가운데 양돈분야의 이탈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중앙회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에 따르

면 올해 입국한 외국인농업연수생 652명 가운데 양돈 분야의 이탈률은 22%로, 한우(16%)·시설원예(13%) 등 다른 분야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농가들은 양돈분야 외국인농업연수생 등 고용직원들이 한 농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기간도 짧고 자주 바뀌면서 농장 생산성도 그만큼 떨어지고 있으므로 양돈장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축산분뇨 액비 활용 점차 증가

전남 순천에서 배추와 단감농사를 짓고 있는 정점택씨(47·서면 운평리)는 올해 2,000평의 가을배추 중 400평에 가축분뇨 액비를 사용, 품질을 높이고 있다.

정씨는 “순천축산농협(조합장 황금영, 본회 부회장)의 권유로 일부 면적에 화학비료와 퇴비 대신 축산분뇨 액비만을 뿌려 재배한 결과 품질이 일반재배 배추보다 월등히 좋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당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동)에서도 벼 수확이 끝난 논을 대상으로 축산분뇨를 이용한 액비 살포를 권장하고 나섰다. 당진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액비를 살포한 결과, 포기당 이삭수와 이삭당 벼알수가 증가하며 10a(300평)당 소득이 약 2% 증가했으며, 비료값도 42%나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진군의 경우 2000년 50ha에 불과했던 액비사용 면적은 올해 약 300ha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새로운 양돈분뇨처리모델 개발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양돈분뇨 처리 모델이 개발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경기도 안성소재 농협 연수원에서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와 도드람양돈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효율적인 양돈분뇨 처리 방안 워크숍'에서 '돈 슬러리 처리모델'이 발표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돈 슬러리 처리모델은 도드람양돈조합과 축산기술연구소 가축분뇨연구실에서 3년간에 걸쳐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것으로 고농도의 돼지 슬러리를 기존의 퇴비화시설을 이용해 바이오필터링(생물여과)를 거쳐 저농도의 액비로 만든 다음 작물에 관수하거나, 정화처리 후 방류하는 방법이다.

## 돼지 등급판정방식 확대 전망

### - 등급판정소, 내년 시행 위해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선 돼지 도체 등급판정에서 육질기준을 추가한 냉도체 판정방식이 내년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는 지난 10월 23일 올해 등급판정 실적 평가와 함께 소·돼지 도체 등급판정에 대한 향후 보완책 및 양계산물의 등급판정 확대 등에 따른 효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등급판정소는 돼지 도체의 경우 소비자의 기호 등을 반영해 현재보다 등지방 두께와 도체중 상한선을 높이고 물돼지 고기 판별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10월 돼지 도축두수 금년 최고

10월 돼지 도축두수가 140만25두로 금년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돼지 값 하락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돼지 도축두수는 암 70만4천7백여두, 수 69만5천3백여두 등 총 140만25두로 9월 121만4천여두에 비해 15.3%가 증가하면서 2003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돼지 도축두수가 급증한 것은 9월초 한가위 이후 돼지 값이 약세를 지속하자 양돈농가들이 출하일령을 앞당겨 출하물량을 늘린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 돼지고기 수입량 감소세 지속

최근 농림부는 지난 10월 돼지고기 수입량이 4천239톤으로 9월 5천91톤에 비해 16.7%, 작년 같은 달 5천205톤 대비 18.6%가 각각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말 현재 돼지고기 총 수입량은 5만2천374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2천942톤에 비해 16.8%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 돼지 피에서 '헴철' 대량생산 기술 개발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인 헴철(Heme-iron)을 돼지 피에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헴철이란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철 단백질 가운데 하나로, 주로 임신부와 청소년의 빈혈치료제나 어린이의 성장을 돕는 건강보조

식품에 첨가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

전북대 의대 김우현 교수팀과 바이오벤처 기업 (주)에이.비.아이(대표 김우현) 연구팀은 돼지피에서 헴철(Heme-iron)을 대량으로 분리, 생산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 제품화 과정에 있다고 6일 밝혔다.

### 축산국 폐지 반대 등 축산현안 적극대처

최근 축산분야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축산분야학회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0월 24일 과학기술회관에서 회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축산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농림부 축산국 폐지반대와 농협 축산경제대표 선임문제 등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 농단협, 조건부 FTA 비준 촉구

20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단체협의회(농단협)가 13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선대책의 일부 보강을 조건으로 FTA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준구 협의회장 등 농민단체장 10여명은 이날 농림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칠레FTA 국회비준을 당당히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20개 농단협 산하단체 명의로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선대책안을 받아들이기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큰 결단을 내

리려 한다"면서 "국회에 당당히 비준을 요청하면서 정부에 조건부안을 제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단협은 FTA 비준 조건으로 ▲정부 지원액이 8천억원으로 계획돼 있는 FTA특별기금을 1조3천억원으로 증액할 것 ▲부채대책에 상호금융 및 경영개선 자금을 포함시킬 것 ▲신규 정책자금의 금리를 현행 연 4%에서 3%로 내려줄 것 ▲농특세 연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줄 것 등을 제시했다.

### 축산연, 환경친화형 2층식 돈사 준공

축산기술연구소(소장 김경남)는 최근 돼지분뇨의 악취를 줄이고 새로운 분뇨처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2층식 고상식 돈사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 이 처리 시스템의 현장 실증 시험을 위해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소재 양돈농장(선경농원)에 이 고상식 돈사를 착공했다. 단층인 일반 농장과 달리 이 돈사는 1층에 분뇨의 저장 및 처리, 콘슬랏 바닥으로 된 2층에서 돼지를 사육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2층에는 송풍파이프 등의 입기시설을 설치, 분뇨의 분해를 돕도록 했다.

축산연 축산환경과 유용희 축산연구관은 "이 시설은 돈사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로부터 돼지와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환기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활용된다"고 밝혔다.

문의 : 축산연 축산환경과 Tel(031)290-1714

## 경기도, 고품질 축산물 경진대회 수상농가 시상

경기도 고품질 축산물 경진대회에서 돼지 부문 한일농장(차상협) 등이 우수농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순화구 경기도지사 및 유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야외음악당에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 및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제 4회 고품질 축산물 경진대회 수상농가와 업체를 시상했다.

제4회 경기도 고품질 축산물 경진대회에는 한우 41두, 돼지 2백55두 등 총 2백96두가 출품되어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엄정한 심사 끝에 오산 한일농장 차상협씨가 최우수, 이천시 곽학용, 양주시 조윤상씨가 우수상을 각각 수상해 상금과 순금으로 만들어진 금메달을 수상했다.

이밖에 농협본부장상에는 화성시 이정배, 용인시 홍재복씨가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2부 행사로 야외음악당 옆 공원에서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와 돼지고기 시식회장이 열리는 등 축산인들의 한마당 축제가 이어졌다.

## 충남, 예산 1% 절감해 농업분야에 지원키로

충남도는 2004년부터 도 자체사업 예산을 1% 절감해 농어촌, 농어업 분야에 지원키로 하고 이를 위해 대대적 예산절감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의 경우 농어촌 인구가 불안정해지면 결국 도 전체 문

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빠듯한 지방재정 속에 농업 및 농촌 투자재원 확보방안이란 묘안을 짜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예산투자담당관실이 중심이 돼 자체사업 예산 1% 절감을 도정 차원의 운동으로 전개하고 각 사업부서의 자발적인 참여와 비농어업 분야의 협조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럴 경우 도는 연간 35억원 내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일반적인 도·시·군 재원부담 비율과 농림사업 지원규정을 적용할 때는 매년 230억원 정도의 신규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절감된 재원을 도내 전 농어업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지원분야는 농업인과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가시험연구사업 평가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 박종명)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겸임연구원, 자문위원 등 수의각계 전문분야의 평가위원을 초청하여 검역원의 금년도 47개 국가시험연구과제에 대한 연차실적평가회와 내년도 추진과제의 설계평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는 12월 3일 축산물 안전성관련 연구분야, 4일 동물세균성질병 및 역학조사 연구분야, 5일 동물의 바이러스성 질병연구 분야 등 3개의 연구과제를 전문분야별로 평가할 계획으로 과제 책임자가 연구결과 및 계획을 발표한 후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양돈**